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소식지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 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October - December 2017, VeKNI

1. 회장 인사
2. 재독과협 지역회 소식
3. 재독과협 회원 동정
4. 전문분과 및 자문위원회 소식
5. 2017년 4분기 재독과협 활동 소식
7. 재독과협 커뮤니케이션 채널
8. 재독과협 진행 사업 안내
9.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소식



존경하는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원 여러분,

지난 3개월 우리협회는 바쁘게 달렸습니다. 성과도 많았습니다. 12개 지역회에서 학술워크숍 및 지역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몇 개의 지역회가 함께 모여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분야별 8개 전문분과에서 분과별 특성을 살린 워크숍, 견학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발전소를 견학하였고,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독 환경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생명분과 등 분과별 세미나도 개최하였고, 유럽의 재료 소재 전문분과 모임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한국과총의 지원을 받은 특별사업으로 독일에서 자동차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대사관에서 주최한 4차 혁명 한독 워크숍과 같은 외부행사에도 많은 회원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일년에 한 번 모두가 함께 모이는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 회원과 가족 170여 명이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5명의 회원께서 학술장학 또는 장학상을 받으셨으며, 단체회원기관에서 참여하여 홍보하고 개인회원과의 만남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정기총회를 통해 부회장(이보현)을 선출하고, 간사장(안현섭)을 보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기, 부정기 모임과 함께 협회 페이스북,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한 온라인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행사를 준비하시고 좋은 성과를 거두시느라 수고하신 평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준비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상호간의 유대 강화와 친목을 도모하고 한국과 독일간의 과학기술 교류를 증진 시키며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협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100% 한 지난 3개월 이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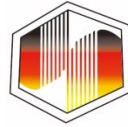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이제 2017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973년 창립된 협회가 45살이 되는 해입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불혹의 나이를 넘겨 지천명의 나이로 향하는 시기입니다. 새해에는 춘계학술대회를 부활하여 회원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더 만들 예정입니다. 지역회, 전문분과를 더욱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 및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독과협회원이었다가 한국으로 귀국하신 동문들의 모임과 독일에서 열리는 과협행사 참여를 권장할 예정입니다.

2017년의 재독과협을 함께 만드신 회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새해에 더 좋은 모습으로 함께 멋진 재독과협을 만들어가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회장 박원선



2017년 10월 재독과협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ssen



재독과협 지역회 소식

1지역 (Berlin)

12월 28일, 1,5,12지역 연합학술회를 Technische Universität Berlin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5,12지역 등에서 대략 50명의 재독과협회원이 참가하였고, 10개의 학술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 네트워킹을 위한 저녁식사 자리를 통해 각자의 분야에 관한 열띤 토론과 함께 재독과협의 발전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지역 (Hamburg, Kiel, Bremen)

12월 16일, 지역회를 다시한번 끈끈하게 하고 더욱 더 의미있는 2지역 한인 과학자들 간의 소통을 위해, 잠시 중단되었었던 학술 세미나 및 지역회 교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2지역 정기총회시간에, 최태규 신임 평의원 (물리학 박사



과정, European X-ray Free Electron Laser GmbH)의 선출이 있었습니다.

3지역 (Hannover, Braunschweig, Clausthal)

지난 11월 17일 Hannover 지역 학생회 모임에 장소대여비 100유로를 재독과협 3지역의 이름으로 찬조 하였고, 그 기회를 빌어 하노버 지역 학생들에게 재독과협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9일 하반기 학술세미나를 Leibniz Universität Hannover에서 개최 하였습니다. 총 28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잘 끝 마쳤으며, 이후 대부분이 회식에 참석하여 하노버, 힐데스하임, 브라운슈바이크 지역 학생들과 친교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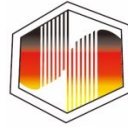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이외에도 박다일라 회원을 중심으로 브라운슈바이크에서도 새롭게 학생회가 탄생하였고, 학생회 조직을 새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5지역 (Aachen, Köln, Bonn)

지난 10월 RWTH Aachen 한인학생회와 함께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여 회원간 네트워킹을 넓히는 시간과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성공적으로 개최된 정기총회 행사를 소개하여 재독과협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KOSEN에서 지원하는 KOSEN DAY 행사를 진행하여 평소 교류가 어려웠던 Forschungszentrum Jülich 회원과 RWTH Aachen 회원들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28일, 1,5,12지역 연합학술회에 많은 5지역 회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7지역 (Stuttgart)

11월 8일, 매년 이 무렵이면 돌아오는 KOSEN DAY 에 올해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올해 토론 주제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과학자들의 자세" 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적은 "우리가 사는 지역을 소개합니다." 였습니다. 팀명은 막스플랑크 연구소와 슈투트가르트 대학교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막스우니추잠멘' 으로 정했고, KBS 1TV "걸어서 세계 속으로" 를 보는 기분으로 슈투트가르트의 이곳 저곳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현지인만 아는 Hot Spot 을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토론 주제 이외에도 각자의 일상과 전공 분야에 대해 시간도 잊은 채 늦은 밤까지 이야기가 이어졌고, 캠퍼스 인근 지역 이외에 우리 동네를 보다 잘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은 입맛을 가진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하며, 한국말

로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미묘한 감정 표현 속에 크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사소하지만, 이 모임이 즐겁게 기억될 수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 30일, "세상에 없던 연구, 평가는?" 라는 주제에 대한 동아시아언스측의 인터뷰 요청에 손광호 전 평의원 외 3명이 참여하였고, 슈투트가르트 막스플랑크 연구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11월 27일에 "[독일] 칸막이 없는 연구 문화 - '노벨상 사관학교' 막스플랑크 연구소" 라는 제목으로 동아시아언스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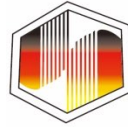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8지역 (München, Augsburg)

10월 7일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와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속 6명의 회원들이 신규 인원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1월 25일 토요일에 8지역 추계 학술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8지역에서는 16명이 참석하였고, 그외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간사장님도 참석하여 격려 해주셨습니다. 총 4명의 발표자가 자신들의 연구에 대해서 소개했고 열띤 관심과 토론으로 주제마다 약 1시간 넘게 소요될 정도로 알찬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술세미나 이후로 뒤풀이 및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Bayern 전통 식당에서 맥주와 함께 오후에 있었던 세미나에 대한 품평회 및 앞으로의 모임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는 학술세미나와 간소한 소모임부터 워크숍을 통한 단합모임까지 여러 의견들이 모였습니다. 대체로 20대 초반부터 40대 분들까지 모여 다양한 생각을 나누었기에 다양한 연령대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모임을 기대해 봅니다.



8 지역 새 평의원으로 정효원님이 (물리학 석사과정, 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 선출 되었습니다.

9지역 (Erlangen, Nürnberg, Regensburg, Würzburg)

지난 4분기 9지역은 회원간의 학술및 정보교류 활동과 회원구축을 목적으로 지역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매달 열리는 9지역만의 특별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11월 Human Genetik Institut, Nürnberg-Erlangen Universität에서 Dr. Arif Ekici님을 연사로 초청하여 유전자 구조와 새로운 기술에 의거한 DNA 해독이란 주제로 열띤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9일 Frühlingsrolle에서 2017년 회계보고 및 2018년 9지역의 새 평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2018년 9지역 새 평의원으로 안효진님이 선출되었습니다.

11지역(Saarbrücken, Kaiserslaute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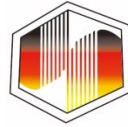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지난 12월 7일 Universität des Saarlandes의 Juristen Cafe에서 연말행사와 더불어 신입회원분들의 환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서 11 지역 신입회원들의 환영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고, Saarlandes 지역 한인회 분들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연말 행사로 2017년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원 공지)

-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 신규 가입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신입회원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reg.vekni.org>)

2017년 상반기 중 기존회원님의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아직 업데이트하지 않으신 기존 회원님은 이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 다른 국가로 이주하신 동문님도 이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업데이트 하여 주시면, 추후 동문 모임 활성화에 사용하겠습니다.



재독과협 회원 동정

1지역 (Berlin)

지난 4분기에, 신정호 회원님 (계산화학 전공 박사 후 과정,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Fritz-Haber-Institut), 박진우 회원님 (Maschinenbau 전공 학사과정, Technischen Universität Berlin), 유병준 회원님 (Energie- und Prozesstechnik 전공 석사과정, Technischen Universität Berlin) 께서 재독과협에 신규로 회원가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2지역 (Hamburg, Kiel, Bremen)

지난 12월 16일에 개최되었던 2지역 학술세미나를 계기로 2지역 브레멘에서 이승훈 회원님 (화학 박사과정, Jacobs Universität Bremen)이 새로 가입하였습니다.

5지역 (Aachen, Köln, Bonn)

2017년 4분기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정기총회에 참여했던 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이어지는 행사로 인해 회원 수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율리히 연구소에 이민호 회원님 (태양전지, 물 전기분해 전극, 박사후과정), 박희용 회원님이 박사과정으로 (NMR, LG화학 소속) 근무를 시작하면서 신규 가입하였습니다.

8지역 (München, Augsburg)

이성기 회원님이 (금속 소성학,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박사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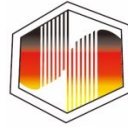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9지역 (Erlangen, Nürnberg, Regensburg, Würzburg)

지난 4분기에, Schweinfurt, 일진기업이 9지역 단체 가입을 신청하였고, 장호선 회원님, 정재민 회원님, 유재호 회원님 (전기공학, 박사과정), 김명식 회원님 (전산역학, 석사과정), 김병훈 회원님 (기계공학, 학사과정)이 새로 회원가입을 해주셨습니다.

11지역 (Saarbrücken, Kaiserslautern)

지난 4분기 11지역 신입회원으로는 최재훈 회원님 (인터과정, Energy Materials, INM), 조인환 회원님 (인터과정, Nano material, INM) 그리고 김수아 회원님 (Computer science 전공 박사과정, Intel 연구소)이 있습니다.

- 신규 회원님들의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독일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경험과 시간을 통해 각자 다른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재독과협은 회원님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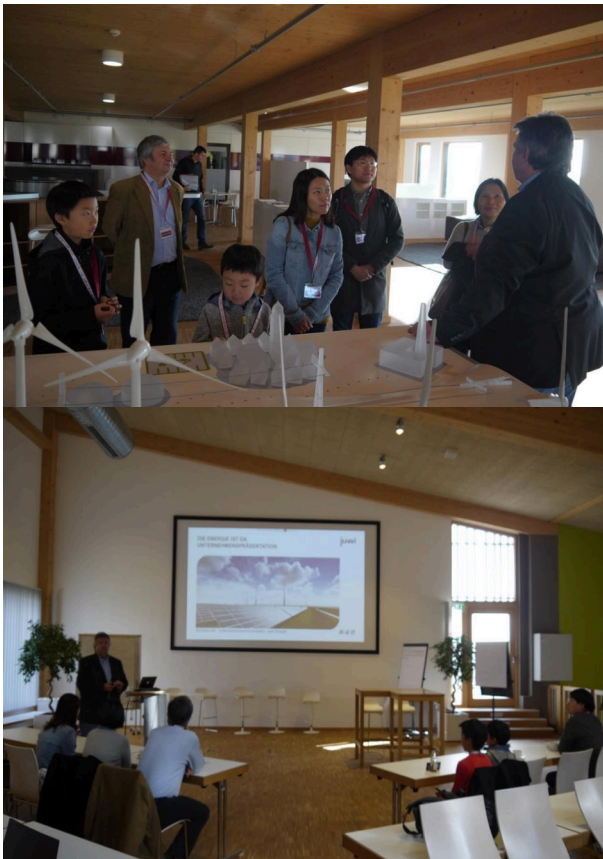
전문분과 및 자문위원회

2017년 재독과협 환경분과 2차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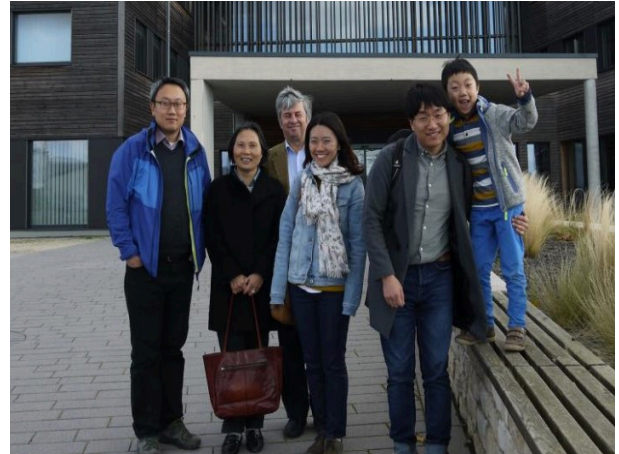
일시: 2017년 10월 27일 (금)

장소: Wind- und Solarparks der Juwi Holding AG in Wörrstadt (juwi AG Energie-Allee 1, 55286 Wörrsta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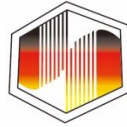
재독과협 환경분과에서는 지난 10월 재독과협 회원 4 명 및 동반가족 3명 등 총 7명이 함께 김주표 환경 분과장의 인솔 아래 Wind- und Solarparks der Juwi Holding AG in Wörrstad (이하 Juwi)를 견학하였습니다.



물, 바람, 태양 등과 같은 자연을 이용하는 발전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이 Juwi의 주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창립당시, 창업자 2명의 엔지니어 회사였지만, 현재 전세계 1000여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로 발전한 Juwi는 프로젝트개발(계획, 프로젝트계획, 자금조달, 건설 감독 및 조직)의 모든 영역을 다루며 운영관리를 수행합니다. 원래 주 영역인 풍력 발전 사업외에 추가된 사업 영역에는 태양에너지도 있습니다.



간단한 회사 설명을 듣고 회사 근처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견학을 시작 하였습니다. 이후, Juwi 그룹의 주력 사업인 풍력발전소를 견학하였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대두된 재생가능에너지가 어떻게 지난 20여년간 독일 및 세계에서 계획되고 설치되고 활용되는지 엔지니어링 회사 입장에서 바라 볼 수 있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근처 식당에서 홍보 담당자인 Löhr씨와 점심식사를 같이 하며 견학에 관한 소감을 나누었고 이후 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2017년 생명분과 학술세미나

일시: 2017년 12월 16-17일 (토-일)

장소: Star Inn Hotel Stuttgart Airport-Messe (In den Entenäckern 6, 70599 Stuttgart)

지난해 기계분과 세미나에 이어 올해는 이은희 생명분과장의 주도아래, 2017년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Stuttgart에서 재독과협 생명분과 학술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자 모두 다른 세부전공의 주제를 들고와서 참신한 발표와 열띤 토론으로 학술세미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학술적인 주제 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성장 방법등에 대해서도 토론을 했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중한 시간을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일에서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끊임없는 교류와 열띤 협력을 약속하며 더 나아가 차후에는 다른 분과 와도 소통도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재독과협에서는 전문분과 세미나도 특별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에도 전문 분야별/테마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생명분과

2017년 학술세미나



2017년 12월 16-17일
Star Inn Hotel Stuttgart Airport-Messe
In den Entenäckern 6
D-70599 Stuttgart

Program 16th of December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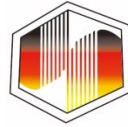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14:00-14:30 Opening at Lobby		
14:30-16:00 Workshop at seminar room		
14:30-15:15	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platform and application	Dr. Yun, Jaeyoung
15:15-16:00	Flow cytometry and analysis	Dr. Lee, Eunhee
16:00-16:20 Break		
16:20-18:40 Symposium at seminar room		
16:20-16:40	Increased protease activity in response to antibiotics induces gut barrier impairment and chronic colitis	Yoon, Hongsup
16:40-17:00	Hck interaction with vesicle production in HIV infected liver cell	Dr. Ahn, Eiyong
17:00-17:20	Small difference makes a big difference; insight into the bifunctional dehydrates-cyclase domain in ambruticin biosynthesis	Dr. Sung, Kwanghoon
17:20-17:40	Genetic and physiological basis of natural variation in Cd hypertolerance of Arabidopsis halleri	Lee, Gwonjin
17:40-18:00	In vitro in vivo correlation in toxicological aspects	Ryu, Changseon
18:00-18:20	Homology recombination with gene of interest and vector for preparation of host cell infection	Kim, Daebin
18:20-18:40	Epigenomic analysis of intestinal stem cells and CRISPR/Cas9-mediated endogenous protein tagging	Kim, Rinho

Program 16th of December (2/2)

18:40-20:30 Dinner		
20:30-22:00 Debate at seminar room		
20:30-21:00	What is CRISPR CAS9?	Dr. Lee, Eunhee
21:00-22:00	Is CRISPR CAS9 good or bad?	Participants
22:00-24:00 Network time		

Program 17th of December

07:00-09:30 Breakfast		
09:30-11:00 Presentation on grant application		
09:00-10:30	Industrial R&D programs of KEIT (focused on Biotechnology)	Dr. Lee, Kangwoo
10:30-11:00	Q & A	Dr. Lee, Eunhee
11:00-12:00 Closing at Lobby		



생명분과 학술세미나 참석후기

8지역 김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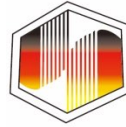
지난 일 년간 뮌헨 헬름홀츠 연구소 (Helmholtz Zentrum München)에서 박사후 과정을 하면서 한국 과학자 분들과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독일에 오기 전 미국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에서 연구원과 박사 과정을 하던 동안, 미국 생명과학계와 바이오제약계에 계시는 여러 한인 선배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이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독일에 온 뒤로는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한국 분을 빈 적도 없었고, 다른 경로로도 서로 연결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를 통해 독일 내 한인 과학기술자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해 둔 덕분에 “생명분과 학술 세미나”가 있다는 것도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세미나까지 겨우 사흘 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지만, 좋은 분들을 만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분과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결원된 한 자리에 총원되어 학술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세미나 참여 경험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술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각기 다른 세부 전공을 갖고 계신 덕분에 새로운 분야에 대해 조금씩 더 알게 되었고, 또한 특정 테크닉이나 활용하는 모델 등에서 서로의 접점이 만들어져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 next-generation sequencing(NGS)을 이용하여 줄기세포, 비만/당뇨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NGS 기술이 중금속 저항성이 뛰어난 식물 종에 대한 유전자 분석에도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반적인 NGS 기술의 발전 현황과 산업적 가치에 대한 의견도 나눌 수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와 진로고민에 특별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과장님께서 준비하신 유전자 가위/재조합 기술(CRISPR/Cas9)에 대한 논의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에 이 기술을 이용하는 것의 가치와 한계, 위험성 등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로서 기술적인 연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연구의 윤리적 측면 또한 깊이 고민해 보아야한다는 문제 의식을 더욱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학술적 논의 뿐 아니라 새벽 세 시까지 이어진 여러 이야기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자로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결실

을 맺는데 필요한 구체적 조언들을 주고 받을 수 있었고, 선배님들께서 독일 생활 전반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주신 것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독일에 와서 원활하게 정착해 나가기 위해 실제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생생하게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강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역시 매우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세부 분야의 연구와 논문만을 바라보는 좁은 시야를 벗어나 수많은 바이오 기술들이 어떻게 평가받고 지원을 받는 지 새롭게 알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좋은 아이디어를 산업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전략적 방법들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생명분과 학술 세미나를 기획하고 지원해 주신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와 이은희 분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일에 생명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사이에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해 나갈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그리고 차후 다른 전공자 분들과도 소통하며 의견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ich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제 1회 한독 환경 워크숍

일시: 2017년 10월 12-13일 (목-금)

장소: Wissenschaftszentrum Bonn (Ahrstrasse 45, 53175 Bonn)

주요 내용

- 현재 대기오염 현황 분석 및 관리
- 미세먼지를 포함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기 위한 도시 내 다양한 대응 방안
- 도시를 넘어서 국가간 발생하는 대기오염 문제



The 1st Korea - Germany Environmental Workshop

Effective ways to improve air quality for healthy cities

12-13 October 2017 (Thursday-Friday)

Wissenschaftszentrum Bonn (Ahrstrasse 45, 53175 Bonn, Germany)

Cities are faced with new and enormous challenges to improve air quality, which is affected by a complex interaction between natural and anthropogenic environmental conditions. As air pollution transcends national boundaries,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called for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Focusing on the current issues on air pollution, this workshop will provide a great opportunity to share current practices, research and knowledge, and generate a dynamic discussion to identify efficient ways to improve air quality.



제 1회 한독 환경 워크숍이 10월 12-13일 (목-금) Bonn에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KIST 유럽연구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최로 독일 본 과학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건강한 도시를 위한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재독과협 이현정 기초과학분과장님이 행사를 기획 및 섭외하며 준비하였고 진행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워크숍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독 환경부·환경청, 서울시, NRW주, 슈투트가르트시, 뒤셀도르프시, 서울대, 이화여대, 슈투트가르트대, 프라이부르크대, Bonn 소재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세계보건기구 유럽환경보건센터(WHO-ECEH), 세계지자체지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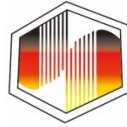
능발전협의회(ICLEI) 등에서 20여명의 패널들을 포함하여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금창록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환경난제"로서 금번 워크숍에서 양국정책 및 주요도시사례, 학계의 주요 연구결과, 국제사회 대응 현황 등을 토론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대안 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과총에서 매월 발간하는 <과학과 기술> 11월호와 독일 기상학회 소식지에 2017년 한-독 환경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이현정 기초과학분과장님께서 후기를 기고해주셨습니다.

이하 후기는 재독과협 홈페이지 (www.vekni.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1회 한독 환경 워크숍 후기

5지역 안소현

환경공학 석사로 입학 한 지 얼마 안되어 전공 분야에 대해 막연해 하던 와중에 재독과협에서 한국과 독일에서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대기 질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는 메일을 받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재독과협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이라면 분명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의 연구 결과를 학생인 제가 직접 들을 수 있고, 토론을 통하여 궁금한 부분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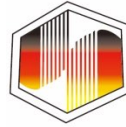
행사가 진행되는 본(Bonn)의 Wissenschaftszentrum 에는 대부분 각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이 주로 참석하였기에, 학생인 저는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워크숍부터는 재독과협 회원 분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워크숍은 1박 2일동안 진행되었는데, 첫째날은 한국과 독일의 대기환경 정책을 통해 우선 각국의 대략적인 현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 국의 대표적인 도시, 서울과 Stuttgart의 대기오염 분석과 실행되고 있는 법규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효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 중 하나는, Stuttgart에서는 교통량의 제한을 위해서 대형 트럭의 목적지가 다른 도시일 경우 Stuttgart를 지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차량을 통제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는 없었지만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실질적으로 Stuttgart 도시 내부에서의 대기 오염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날 일정 후 저녁 식사를 통해 좀 더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고, 저 또한 궁금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북한의 대기 오염 현황 그리고 인근 국가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각 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기 오염 문제는 한정된 지역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국가 혹은 더 먼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협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지역의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의 대기 오염 물질이 50%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배우는 것이 이 워크숍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 연구하시는 분야에서 관련된 논문을 읽거나 서적을 찾아보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지만 연구 활동과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연구 결과를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회원 분들께도 다른 워크숍, 혹은 내년에 제 2회 한독 환경 워크숍이 열리기회가 된다면 꼭 참석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유럽 재료소재 협회 4차 포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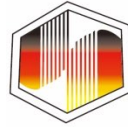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일시: 2017년 10월 27-29일 (금-일)

장소: Mercure Budapest (Buda Krisztina Körút 41-43, 1013 Budapest, Hungary)

주요 내용: Emerging materials (superior materials as better alternatives to convention)

유럽 재료소재전문가 협회는 오는 10월 27일-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럽 재료소재 협회 4차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재독과협, LG전자 재료소재 기술원 및 KIST 유럽, 한국 산업기술 진흥원, SK innovation(협의중), 재료연구소 등의 기관에서 참석했으며 참가자중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가능기관등과 직접 채용면접 행사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은 본인의 전공을 공유하는 발표 세션을 가졌습니다. 재독과협 재료분과장이자 유럽재료소재 전문가협회 독일 코디네이터인 윤송학박사님의 주도 아래 재독과협에서도 이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유럽 재료소재 전문가 협회 4 차 포럼을 다녀와서

재료분과장 윤송학

10월 27일 금요일 유럽 재료소재 전문가 협회 총회 이후 저녁 식사 그리고 그 후 진행된 네트워크 시간에 사적 그리고 공적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국에서 오신 최영진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이야기, 용기가 최선의 덕인데 지나치면 만용이 되고 부족하면 비겁해진다는 것. 윤리학의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 연구자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되었습니다. 비겁하지 않으며, 만용을 부리지 않는 그 적절한 선을 지키는 연구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하셨던 이야기와 맥락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불현듯 F. Scott Fitzgerald의 아래 인용문이 생각났습니다.

“The test of a first-rate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hold two opposed ideas in the mind at the same time, and still retain the ability to function. One should, for example, be able to see that things are hopeless and yet be determined to make them otherwise.”

다음날 아침 식사 후 8시 반에 김세종 회장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이정수 원장님의 축사와 재독과협 박원선 회장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9시, 가장 먼저 LG전자 소재/생산기술원의 이정수 원장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결국 인간중심, 인간본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기억에 남았고, 질의응답시간에 기술원이 요구하는 인재상에 대한 질문에는 실력은 당연히 기본이고, 태도(Attitude)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열정, 융합형, Co-work에 능하고, 의사소통 (communication)을 잘 할 수 있는 종합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특히 무엇보다도 긍정적으로 도전하려는 자세(mindset)를 마지막으로 언급하실때는, 원장님이 보시기에 요즘 젊은 연구원들이 대체적으로 원장님이 젊었을 때와는 달리 도전정신이 부족해 보이는 걸로 여기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사과정 때 무모하게 긍정적으로 도전하던 내 열정이 사라진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유럽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어언 10여년을 지내면서, 너무 비판, 소극적인 자세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LG 전자 홍근영 책임의 그래핀 소재에 대한 연구 현황을 이어서, 박천교 소장님과 김정태 단장님의 기관소개를 이어, 차승남 교수님과 김종욱 교수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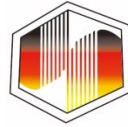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서 하고 계신 연구를 각각 30분씩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각 분과 별로 회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 프로그램중에 가장 특이한 점이 참석자 전원이 자신의 연구분야에 대해 5분발표, 2-3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회원 각자의 개성이 묻어나는 짧은 발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다는 학생의 열정에 놀랐고, 여러 박사님들의 서로다른 (겸손한 경우가 있나하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경우도 있는) 발표 스타일 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저 개인의 연구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옆에 앉으셨던 KIST Europe 이재호 박사님과 제가 지금 진행중인 광촉매 연구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점을 딱 집어 이야기 하실때 전율했습니다. 바로 컴퓨터를 열고, 동료 연구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 포럼이 잘 모르는 분들이 보기에는 유럽에 재료연구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 네트워킹하는 것이 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포럼을 통해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연구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에서 포럼이 열릴지 기대가 됩니다.

차를 몰아 포럼을 참석하러 가는 긴 시간 동안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여기에 참석하러 할까? 의무감일까? 왜 포럼을 준비하는지 분들 (김세종 회장님, 최영진 박사님)은 이 고생을 하실까? 의무감일까? 이런 질문은 일 주일 전 참석했던 재독과협 정기총회때 박원선 회장님과 간사님들을 보면서 했던 질문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겠지요. 포럼을 마치고 차를 몰고 돌아오는 긴 시간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무감만으로는 절대 못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재독과협 정기총회/추계학술대회 그리고 이번 유럽재료소재전문가 협회 4차 포럼을 다녀와서 한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한 마디, 그가 하는 손짓 몸짓 하나에도 조직에 대한 애정이 보인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인다는 것. 그럴때야라만, 깨어있는 사람들의 조직이 생긴다는 것. 결국 사랑이다. 모두가 사랑이예요.

헌신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그 이름 사람. 사랑스러운 그리고 아름다웠던 부다페스트, 그 곳의 풍경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7년 4분기 재독과협 활동 소식

2017년 2차 평의원회의

일시: 2017년 10월 22일 (금)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평의원

2017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10월 22-24일 (금-일)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지난 10월 Essen에서 2017년 정기총회와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0여명의 회원과 동반가족들의 참석과 함께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참석 열기와 회원님들의 분위기를 담은 각종 후기들을 소식지 말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VeKNI) 2017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7년 10월 20-22일 (금-일) - 장소: Wimberstr. 1 45239 Essen (Bildungszentrum Essen - BEW) 참가등록 - 회원(2017년 연회비 납부 및 회원정보 등록)의 참가비는 무료 - 비회원의 경우 초청자에 한해 참가 가능 - 동반가족의 참가비는 가족당 20유로 - 부부가 과협 회원인 경우 별도 등록 요망 교통비 지원 - 자차 이용시 유류 실비 전액 보조 - 렌터카 이용시 탑승인원에 따라 차등지급 - 기차 또는 대중 교통으로 오셔야하시는 회원의 경우 회원 1인당 70유로 상한 실비 지원	주요 프로그램 - 10/20(금): 평의원회의, 네트워킹 - 10/21(토): 기초강연, 가족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학술발표회, 전문분과 모임, 정기총회 등 - 10/22(일): 기초강연 등 학술대회 발표 신청 - 전문분과별로 구두 및 포스터 발표 진행 - 초록은 영어, 한국어, 독일어 중 1개 선택 - 발표시간은 질의응답 포함 1인당 15분 예정 - 모든 발표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발표비 지급 - 우수발표자를 선정하여 시상 기타 사항 -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가족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참가신청 및 초록 등록 마감은 모두 10월 8일 자정이며 추가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 숙소 갯수 제한으로 정원 초과 시 참가신청 순서를 고려하여 일부는 외부 숙소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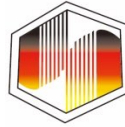
행사안내, 회원가입, 참가신청 및 초록접수는
<http://2017vv.vekni.org>

자동차 분야 한인종사자 모임 (재독과협 특별사업)

지난 12월 2일 Stuttgart 외곽 지역에 위치한 TERMINAL EINS 에서 동반가족을 포함하여 총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청강연, 참석자 자기소개, 모터월드 투어, 저녁식사, 네트워킹 순으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직무 분야 그리고 서로 다른 소속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앉아 서로를 소개하고 공통 관심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저녁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특별 초청 연사로 6지역 허준화 평의원님과 7지역 우도영님을 초청하였습니다.

2017년 특별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부터 진행되어온 '독일 자동차분야 한인종사자 모임'은 세 번째 공식 모임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재독과협에서는 박원선 회장, 안현섭 간사장, 윤송학 재료분과장, 윤성호 기계분과장, 허준화 6지역 평의원, 차완기 8지역 평의원께서 행사 참석을 위해 먼 길을 와 주셨습니다. 본 특별 사업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특별지원을 받아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에서 진행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한-독 비즈니스 네트워킹

일시: 2017년 11월 29일 (수) 09:00 -16:30

장소: InterContinental Hotel Berlin

주독대사관이 개최하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한-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독일상공회의소(DIHK), 독일아태경제협회(OAV) 등 독일 경제·산업단체와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베를린경제진흥공사(Berlin Partner)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IoT)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독일 인더스트리 4.0과 스마트 서비스 월드 개념을 공동 주창하고 정책화한 독일인공지능연구센터(DFKI) Wahlster 소장님과 로봇학계의 권위자로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이신 박종오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해 주셨습니다.






4 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한-독
Digital Business Connectivity
- Korean ICT and Smart Services -
28th -30th November 2017, Berlin

■ **메인 행사**

4차 산업혁명 관련 한-독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 Digital Business Connectivity - Korean ICT and Smart Services

• 일시 및 장소: 2017.11.29(수) 09:00-16:30, Berlin InterContinental Hotel

■ **부대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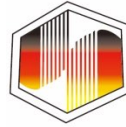
☐ 독일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주최 hub.berlin 2017 행사 참관
• 일시 및 장소: 2017.11.28(화) 09:00-18:00, hub.berlin 행사장

☐ 주독일대사 주최 만찬 간담회
• 일시 및 장소: 2017.11.29(수) 18:00-20:00, 베를린 한식레스토랑 <고향>

☐ 독일 4차 산업혁명 현장 시찰
• 일시 및 장소: 2017.11.30(목) 10:00-12:00 (tbc)







Digital Business Connectivity

- 한독 4 차산업혁명 비즈니스 포럼을 다녀와서

2지역 지은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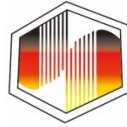
2017 년 11 월 29 일 4 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베를린에서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었다. 필자는 스포츠과학을 전공한 학생으로 독일에서 스포츠 임상 치료를 전공으로 올해 여름 석사과정을 마쳤다. 석사과정 중 운동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 스마트 워치나 애플리케이션 등 스포츠 산업과 스마트 서비스에 관련된 세미나를 여러 번 들었고 특히나 스포츠 임상 치료 분야에서도 치료, 예방, 건강보험 등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일상 생활에 많은 부분이 이미 4 차산업화 되었음에도 실제로 독일과 한국의 기업들은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지 궁금하여 이 비즈니스 포럼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경수 주 독일대사,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 총국장 Steffan Schnorr 와 독일상공회의소 국제협력실장 Julia Arnold 의 환영사와 함께 비즈니스 포럼의 막을 열었다. 이들은 4 차산업혁명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과 미래산업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Keynote Speech 와 1 세션, 2 세션, 3 세션으로 나뉜 발표가 오후까지 이어졌다. 1 세션은 스마트 서비스 분야의 한국 기업들 그리고 관련 산업을 진행 중인 독일 정부 및 독일 기업의 발표로 이루어졌으며 2 세션에서는 한국의 ICT 및 스마트 서비스 관련 스타트업 기업의 발표를 들을 수 있어 기존부터 이어진 기술개발과 최근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3 세션에서는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 개발의 한, 독 협력 사례와 스타트업 회사들을 위한 지원사항들을 소개했다. 필자가 흥미롭게 본 발표는 현대자동차의 “AI and Autonomous Driving” 발표였다. 아직 상용화 하기에는 기술개발을 더 해야하지만 자동운전 기술이 개발 중이라는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5 년, 10 년 뒤에는 아마도 대리운전이 없어지지 않을까? 대리운전기사님들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도 든 반면 아깝기만 하던 운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기대됐다.

2 세션에서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회사인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of Korea 의 „Dr. Intelli - A.I Healthcare Partner“의 발표가 인상깊었다. Dr. Intelli 는 침습적으로 하루 3 회 혈당 검사를 해야하는 당뇨병 환자들이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비침습적으로 본인의 혈당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다양한 만성질환 관련 분야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개별적 신체활동 관련한 데이터도 함께 서비스 한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점심식사 후 2-3 시간 가장 관심있는 기업 세션에서 사업 문의 및 상담, 발표 때 공

금했던 점을 질문 할 수 있었다.

2017 년도 4 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포럼은 Keynote Speech 부터 1, 2, 3 세션 발표 및 네트워킹 시간까지 4 차산업혁명과 스마트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관련 기업들과 네트워킹 할 수 있도록 잘 구성된 행사였다. 이번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우리 곁에 밀접해 있지만 잘 인지하지 못했던 기술 또는 기사로만 접하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심도 있게 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주독대사관 주최 4차 산업혁명 한-독 네트워크 행사 참관기

2지역 권지희

주독대사관이 주최한 한-독 비즈니스 네트워크 행사는 4차 산업 혁명(Korean ICT and Smart Services)이란 주제로 2017년 11월29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개최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정보통신산업협회(BITKOM), 독일상공회의소(DIHK), 독일아태경제협회(OAV) 등 독일 경제산업단체와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베를린경제진흥공사(Berlin Partner) 등 관련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그리고 독일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한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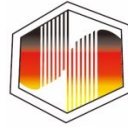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필자는 무테지우스 미술 디자인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다. 세부전공인 Interactive Media design 분야에서 최근 집중하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4차 산업과 관련한 Virtual Reality(VR)/Augmented Reality(AR)을 이용한 디자인 작업이다. 미술 디자인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 들은 단순히 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앞서 근본적인 컨셉과 아이디어부터 생각을 시작한다. 팀 프로젝트로 진행 된 수업에서 의료, 교육, 물류,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VR/AR 활용 가능성을 리서치 하고 토론하게 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커지게 되었다. 본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 독일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양 국가간 산업협력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궁금했고, 스타트업 회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본 주제와 관련된 사업 아이템과 모델에 관심이 있었다.

기조연설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을 기반으로 스마트 서비스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과 방향성에 대해 알 수 있었고 한국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들었다. 스마트 서비스에 관한 세션에서는 HERE에서 위치정보의 공유를 기반으로 파생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 단순한 네비게이션과 자율 주행 자동차만을 연상했던 나에게 새로운 시선을 주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이 발표했던 세션 2에서는 M.A.I.K(Artificial Intelligence of Korea)에서 선보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AI 적용 사업모델을 관심 있게 보았다. 당뇨병은 세계 전반에 걸쳐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질환으로 환자 개인의 관리가 채혈부터 식사 조절까지 매우 번거롭고 까다롭다. 이러한 문제에 초점을 두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 분석하여 실시간으로 식사를 조절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하였다.

이번 행사 전반적으로 본인의 관심사인 헬스케어에 대해 집중해서 들을 수 밖에 없었는데, 독일 내의 사례들로 잊지 않고 약을 복용 할 수 있게 도와주는 7x4 Pharma 의약품 포장, 환자와 의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환자의 의료데이터 기록을 바탕으로 개인에 맞춰진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도와주는 MA CSS 앱 등을 알게 되었다. 최근 VR/AR 들을 실제로 활용한 수술 및 의료 교육 등을 보고, 최신 기술들의 실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에 놀랐던 적이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헬스케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모델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AI 등의 적용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 생활 전반 부에 걸쳐 어떤 변화를 불러 올지가 궁금해 졌다. 또한 빅데이터의 처리와 활용 그리고 그것의 시각화와 마지막으로 제공되어지는 스마트 서비스까지 디자인의 역할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마지막 네트워킹 세션을 활용하여 기업 관계자분들께 부담없이 질문을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유익했다.

회원 공지)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는 모든 회원분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소개하고 싶은 지역소식, 행사 및 과학기술관련, 각종 행사 후기 글을 워드 파일 (2매 내외)로 보내주시면 편집회의 후 소식지에 실어드립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rein Koreanischer Naturwissenschaftler und Ingenieure in der BRD e.V.
The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in the FRG

재독과협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2017년 현재 아래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홈페이지가 더욱 편리하고, 새로운 정보 가득한 홈페이지로 변화하였습니다.

www.vekni.org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페이스북 그룹



회원간의 소소한 이야기와 일상을 전하는 공간, 재독과협 페이스북 그룹이 개설되었습니다. 회원간 친목, 사진 게시, 질의 응답 등의 비공식적인 정보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가입, 열람,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페이스북 내에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검색 또는 다음 링크 주소를 이용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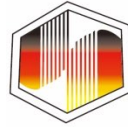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www.facebook.com/groups/348153868866931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카카오톡 오픈채팅



아래주소로 들어오시면 재독한국과학기술자 협회 회원분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협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가입, 열람, 작성 모두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https://open.kakao.com/o/gizwXBr>



재독과협 진행 사업 안내

전문분과 연계 콘텐츠 활성화 사업 (전문연구정보)

박사과정 이상이나 연구소 소속 연구원 대상으로 본인 분야에 대한 개괄적 소개 또는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 받는 독일의 신기술 소개를 중점으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원고모집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형식에 특별한 제약은 없으며 자유형식이지만, 최소 A4 3장 분량으로 작성 요망, 글씨크기 12P, 글씨체 자유, 줄간격은 160%로 작성 권장합니다. 그리고 언어는 한국어로 작성 필수입니다. 세부사항과 원고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내 안내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지역, 연구소 정보 교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사업 (독일 교육연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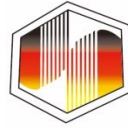
전 회원 대상, 독일에서 연구를 시작하거나 연구과정 중 개별 연구소 및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원고모집 사업입니다.

- 1) **학사과정:** 거주지역 유학생황에 필요한 정보소개 (학교 소개/시설/입학정보/기관이 위치한 지역소개/기타)
- 2) **석사, 박사과정:** 전공에 따라 과정, 학교 또는 연구소 특징과 흐름 소개 (독일에서 연구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들, 지원방법, 학업과정의 특징, 연구소의 중점사항)
- 3) **박사과정:** 연구소 소개 (독일에서 연구하기, 연구소의 특징)

* 세부사항과 원고접수방법은 홈페이지 내 안내사항 참조.
편집 후 홈페이지 및 회지에 게재되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회원 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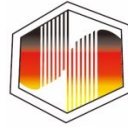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전문분과 연계 콘텐츠 활성화 사업 (전문연구정보)과 지역, 연구소 정보 교류를 위한 데이터 수집사업 (독일 교육연구정보)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독과협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017 소식

2017년 10월 20일 부터 22일까지 Essen에서 재독과학협 전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행사에 많은 회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독일에서 학업이나 연구를 수행중인 많은 한인과학기술자들과의 전문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사진으로 즐거웠던 시간을 이곳에 공유합니다.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2017 후기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참관기

고영종 총무간사

1973년 설립된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이하 재독과협)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독일 에센 소재 Das Bildungszentrum für die Ver- und Entsorgungswirtschaft GmbH (BEW)에서 2017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총 130여 명의 학/석/박사과정 학생, 박사후 연구원 및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그리고 40여 명의 동반가족이 참석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다지는 시간과 함께 아래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좌) 정기총회 참석자 단체사진. (우) 평의원 회의.

• 환영사 및 장학상 시상식 (21일 오전)

본격적인 행사는 박원선 회장(제29대)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주요인사와 지역회, 전문분과별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7개 전문분과 대표인 분과장 및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는 신청서를 제출한 회원들의 연구성과와 재독과협 활동의 적극성을 고려, 선발된 총 5명(김의열, 이상욱, 정현호, 최은진, 최이다)에게 장학증서와 최대 700유로의 장학상을 수여하였다. 이는 각 과정보다 차세대 과학기술자들에게 격려와 동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 강연 및 단체/기관회원 소개 (21일 오전)

기조강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진형 과학관은 내년 정부 R&D 투자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발표하고, 현재 하향식(top-down)의 연구과제 제안 및 투자방식을 탈피, 연구시스템의 혁신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유럽 거점 이강우 소장은 산업기술 R&D 과제 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및 발표요령이란 주제로 과학기술자들

이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과 발표에 있어 자주 간과되는 요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단체/기관회원 순서로 KIST Europe(서정호 대외협력실장), 일진베어링(진성규 이사), KEREC(라상원 센터장), KIC Europe(전호석 사무국장)이 참여하여 각 기관의 역할 및 미래전략을 소개하였다.



(좌) 강연중인 KIST Europe 서정호 (우) 학술장학상 수상자. 대외협력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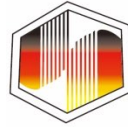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 학술 발표회 및 전문 분과 모임 (21일 오후)

학술 발표회는 공학I (전기전자정보, 기계, 에너지), 공학 II (환경, 재료, 에너지), 생명/기초과학의 3개의 세션으로 구분, 총 21개의 구두 발표와 1개의 포스터 발표가 진행되었다. 좌장과 참석자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우수발표자 3명에게 각 100유로의 상금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였으며 수상자로는 문건희(MPI für Kohlenforschung), 윤지수(Deutsches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 – Stuttgart), 이권진(Ruhr-Universität Bochum). 이후 전문 분과별 모임을 통해 자신의 전공분야를 소개하고 토론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연구분야뿐만 아니라 접목 가능한 분야의 연구기술자들과 교류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정기총회 및 네트워크 (21일 저녁)

정기총회에서는 20일 저녁에 열린 평의원 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을 참석한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고 의견을 받아 최종안을 의결하였다. 석준원 자문위원의 주도로 진행된 정관 개정안 채택 그리고 공석이었던 신임 부회장 및 간사장 선출이 이번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 이었다. 부회장으로 이보현 박사(Maiwald), 간사장으로 안현섭(HERE Technologies)이 선출되었고 신임 총무간사로 고영종(Christian-Albrechts-Universität zu Kiel 박사과정)이 지명되었다.

이후 진행된 네트워크 시간은 간단한 다과 및 맥주와 함께 독일 내 각급과정의 학생들과 과학기술자들간의 학술적 교류뿐만 아니라 개인적 친목도모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었고, 이를 통해 독일에서 활동중인 한인 과학기술자들과 활발한 교류의 발판이 되었다.

• 멘토링 프로그램 (22일 오전)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의 커리어 개발 및 동기부여를 위해 기획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강이화 박사(Nano Energie Technik Zentrum, NETZ)는 KEIT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유럽 성공사례를, 김주표 박사(Steinmüller Babcock Enviroment GmbH)는 <독일 회사 취업하기>라는 제목으로 독일 기업취업과 관련된 생생한 경험담을, 박사학위 취득 후 슈투트가르트 시청(환경보전과 도시기후 연구부) 근무중인 이현정 박사는 <독일 공무원 되기>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 주었다. 멘토들의 소중한 경험담은 독일에서 정착을 목표로 하는 후배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에서 취업을 위한 생생한 준비과정과 회사생활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님들의 은퇴 후 삶 준비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은 학생부터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 이번 행사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과 현대자동차, KIST Europe, 일진베어링,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특별히 현대자동차는 행사를 위하여 회원 수송용 차량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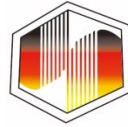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마치고

8 지역 한지행

독일유학생활에 점점 지쳐가던 올해 초 지인을 통해 우연히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를 알게되어 이번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낯설고 어색했던 순간을 지나 사람들이 밀려들어오면서 회장단분들의 일을 잠시 돕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던 그들의 댓가 없는 봉사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가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이분들을 아랫사람 대하듯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화가 났지만, 그들과 반대되는 따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기분 좋게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유익했던 시간은 기초과학/생명 세션 학술 발표회였습니다.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의 귀한 연구 자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것에 관해 서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한때 저렇게 열정 넘치던 때가 있었는데..' 하며 나태해진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유학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 마인드가 내면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얘기하고, 또 그들을 관찰하며 좋은 기운을 많이 받게 된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계기로 여러 면에서 많이 자극 받았고, 2박 3일간 정말 즐거웠으며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많은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7 재독과협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마치고

12 지역 편성열 정보간사

외국에서 살다보면 백 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행사에 다녀올 때마다 가족과 같은 귀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취해 마치 한국에 다녀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후유증이 제법 오래 지속되곤 한다.

올해 재독과협(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도 여느때와 같이 오랫동안 여운이 남을 정도로 독일 각지에서 온 따스하고 매력적인 분들과 알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다. 개인적으로 작년과 달랐던 건 기존에는 협회 회원의 한명으로서 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느낌이 강했었다면, 올해부터는 회장단의 간사로서 보직을 맡아 책임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행사에 임하는 자세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행사가 진행되는 3일 동안 조금의 긴장도 늦출 수 없었다. 회장단에 속하여 큰 행사를 직접적으로 주관하여 진행하는 건 사실상 처음이다 보니 행사기간동안의 임무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행사 시작 전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숙소배정부터 약간의 어긋남이 시작되어서 초보간사에게 시련이 다가오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도 큰 탈 없이 행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만족스럽다.

작년에는 처음 정기총회에 참여하게 되어 다소 낯설었던 2박 3일간의 행사기간동안 순간순간의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순간의 재미와 네트워킹에 집중하였었다면, 올해는 행사를 직접 치르다 보니 내가 작년에 웃으면서 가볍게 보내고 있었던 시간에누군가는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뒤에서 바쁘게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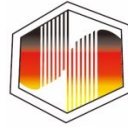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처음 재독과협의 구조와 시스템을 전혀 알지 못했을 때는 회장단 또는 협회 내 봉사자들은 정부 또는 특정기관으로부터 고용되어 매달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일종의 봉사활동처럼 재독과협의 행사에서 봉사를 해왔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과협을 위해 오랜 시간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먼저 독일에 와서 잘 정착해서 살고 있는 만큼 새로 한국에서 왔거나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여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재독과협의 자랑인 자문위원님들은 한국에서 온 후학 또는 후배들을 독일생활에서 더 안정적인 길

로 이끌어 주기 위하여 재독과협에서 중심축과 같이 지탱해 주시고 계시는 고마운 존재들이다.

회장단으로 일하다보면 처음 만났지만 정말 따뜻하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다. 가끔씩은 내 일을 미뤄가면서 해야 했던 과협업무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가 생각지도 못했던 짧은 감사편지와 엽서로 그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공중분해가 되어 뿌듯함으로 변하게 될 때도 있다.

행사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기차 안에서 행사 준비과정 및 행사기간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아쉬워 시원섭섭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때 조금만 더 신경써드렸으면 그 회원님이 조금 더 쉽고 편하실 수 있었을텐데’ 라는 아쉬운 마음도 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세션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발표를 듣지 못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았다.

내년에도 춘계학술대회, EKC 2018 그리고 또 다시 정기총회까지 굵직한 행사들이 많이 남아있다. 내 본업인 학생으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회장단의 임기가 마무리 될 때까지 과협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겠다.



큰 도전과 독일에서의 시작

7 지역 윤지수

태어나서 처음 외국생활에, 한국 분이 전혀 없는 연구소였기 때문에 기대감 보다 큰 걱정을 안고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인을 통하여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및 학술대회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과학이라는 하나의 큰 테두리 안에서 비슷한 경험과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운 마음으로 학회 참가 및 발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계학술대회 2박 3일의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맥주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처음 만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분야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왔기에 그리고 한국이 아닌 타국에서의 생활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에게도 독일 행은 큰 도전이었지만 새로운 것을 얻거나 도전하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새로운 것을 움켜질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처럼 안정적인 한국생활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하신 분들을 뵈고 스스로 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회에서 만나 뵈 수 있었던,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걸어가신 선배님들 또한 거울삼아 1년간의 독일에서의 생활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에서 제가 연구한 내용을 다양한 분야의 한국분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큰 상까지 받을 수 있어 너무나 감사드리며, 다음 학술대회 때 다시 뵈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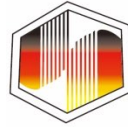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2017 재독과학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참석 소감

5지역 위한나

독일에 온 지 이제 어느덧 한 달. 마치 보호색을 띄는 듯이 조금은 칙칙하다고 생각했던 독일의 거리도 울긋불긋한 가을의 색채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개강한 지 첫 주가 지나고, 마치 뒤통수를 한 대 얻어 맞았던 듯한 충격으로 인해 어딘가로 문득 떠나고 싶어진 때였다. 오랜 기간 동안 나의 유학 준비를 도와주신 선배님께서 소개해주신 총회는 나에게 있어서 일종의 신나는 일탈이었다. 그렇게 본에 온지 한 달이 지나서야, 다소 안타까운 일이지만, 드디어 나는 독일의 다른 도시를 가보게 되었다.

총회는 그야말로 최고였다. 음식, 숙소, 학술 발표회, 늦은 밤의 맥주 타임... 어느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다. 특히 둘째날 저녁 식사는 한식 뷔페였는데, 한국 음식을 뷔페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의 도가니였고, 독일에 와서 정말 처음으로 제대로 저녁을 먹은 것 같았다. 숙소 역시 깔끔하고 아늑했고, 학술 발표회는 나와 분야가 조금 다른 발표가 많아서 사실 기대했던 물리학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지만 다양한 분야, 즉 천문학과나 환경분야 인포매틱 등에 대해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어서 꽤나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시간은 맥주와의 시간이 아니겠는가. 꽤나 나날 법한 맥주들을 무제한적으로 마실 수 있다는 건 나에게 최고의 일탈을 선사해주는 것과 같았다. 더군다나 아헨, 베를린, 드레스덴 등등 다른 지역에서 다른 분야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특히 한국말로 소통을 하고 한국인들과 정을 나누니 먼 타지에 와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한국에 있는 것 같아 속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늘 도움을 주시고 이번 총회를 알려주셔서 좋은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선배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와 함께 해준 본 대학 동지들과 이번 기회에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건승을 빕니다.



2017 정기총회 및 가을학술대회를 마치고

2지역 김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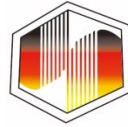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가을이라고 하면 맑고 높은 하늘을 떠올리게 되지만 독일에서는 잦은 비와 짧은 낮의 길이로 인한 어둠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런 날씨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울한 기분에 젖어 들게 된다. 독일에 맥주나 와인을 마시는 행사가 많은 이유가 이런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도 가을에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성대하게 여는 데에는 이러한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며 글을 시작한다.

2016년에도 이런 학회가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독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이곳에서 주어진 업무에 적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그 당시에는 참석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올해에는 여러 상황이 잘 맞아 떨어졌고 현재 업무에도 어느 정도 적응하여 부담 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함부르크 지역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3 명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서 주말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

독일 전 지역에서 학술대회에 참석을 하다보니 금요일에는 학회장으로 이동, 저녁 식사, 그리고 환영식 및 네트워크 시간으로 채워졌다. 영어와 독일어로 둘러싸여 일상을 보내다가 이렇게 많은 한국사람들을 만나 한국말로 거침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함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새벽 이슬을 보며 첫 날 밤을 지새게 되었다. 첫날 밤부터 너무 무리하여 둘째날 개회식과 기조강연을 참석은 못하였지만 그에 못지 않게 알찬 시간은 전날밤 보냈음에 위안을 삼았다. 오후에는 본격적인 학술 발표회가 진행되었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발표를 한국말로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물론 분야가 너무 광범위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까지 배우기는 힘들었지만 두리몽실 하게나마 여러 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든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고 나아가 공동 연구를 추진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학술대회의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정기총회가 이어졌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독일 각 지역별 모임에 관한 발표를 하는 것이었다. 지역별 학술 행사 및 정기 모임 관련 자료를 공유 하면서 지식 및 인적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과정을 다 같이 공유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지원해주는 과정이 잘 드러나 있었다. 외롭고 쓸쓸할 수도 있는 타국 생활에 서로서로 의지함으로

써 삶을 더 의미있게 만들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즐거움이 만들 수 있다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 이었던것 같다. 이와 더불어 본인은 100 대 1 의 경쟁률을 뚫고 아이패드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되어 좀 더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내년에 이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되면 올해 참석했던 사람들이 나를 “아이패드 경품 당첨자”로 기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100 대 1 정도면 누구나 도전해 볼 만한 확률이기 때문에 이 경품을 위해서 행사를 참석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 없는 한 문장을 작성해 본다. 정기 총회 이후에는 네트워크 시간을 가졌다. 이번 네트워크 시간에는 회원들끼리 좀 더 돈독해 지라는 의미에서인지 협회 분들께서 소주라는 마법의 물약과 컵라면이라는 마법의 재료를 준비해 주셨다. 이 마법의 물약과 재료는 네트워크 자리를 더더욱 달구어 주었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쉽게 잠자리로 보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둘째 날이 새하얗게 지나가게 되었다.

마지막날 아침에는 오전 9 시라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체크아웃 시간과 아침식사 덕분에 전날 마셨던 마법의 물약이 좀 더 빨리 해독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침식사 후에는 세 개의 기조강연이 있는데, 강이화 박사님의 “KEIT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유럽 유치 성공사례”, 김주표 박사님의 “독일 회사 취업하기”, 그리고 이현정 박사님의 “독일 공무원 되기” 이렇게 강연이 이어졌다. 세 강연 모두 한국 밖에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부분들을 되새겨 주었고 이를 준비해 가는 과정을 상세하고 쉽게 알려 주었다. 연사자 분들이 살아오면서 몸소 부딪히며 얻은 삶의 지혜와 노하우를 전수 받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가장 기본적인면서도 중요한 것은 독일에서 오래 머무르려면 독일어에 능숙해 져야 된다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기조강연을 마치고 점심 식사가 이어졌고, 점심 식사 후에는 모든 학회 일정이 종료가 되었다. 물론 일정 종료 후에는 참가자 모두 본인의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과 다시 독일어와 영어로 둘러싸인 일상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약간의 고단함이 추가 되었겠지만...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달콤한 일요일 밤을 보낸 후에 다시 영어와 독일어로 둘러싸인 일상으로 돌아 왔다. 하지만 지난 2 박 3 일간의 즐겁고 보람찬 기억이 있었기에 좀 더 활기찬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행사 참석자중에 1 인으로써 행사에 참석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를 듣고, 강연을 듣고, 행사를 즐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나지만, 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담당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에 말씀을 전해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2017년 재독과협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참관기

3지역 고승희

독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는 한국 사람도 별로 없고, 주변에서도 비슷한 분야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던 차에 재독과학협회의 존재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학회 참석을 신청하기 전까지, 아는 사람도 없고 혹여나 2박 3일 내내 다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멀뚱히 앉아 있다가만 오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모두 기우였던지, 새로운 사람들은 많이 사귀고 원래 전공분야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 외국에서도 여러 학회를 참석하였지만 어찌보면 다들 폐쇄적이고 운영진의 권위적인 모습에 일반 회원들은 기존의 알던 사람들과만 대화하는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재독과협 학술대회를 통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학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모든 평의원 및 간사, 운영진분들의 노고로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학회를 통해 좋은 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 좋은 연을 계속 이어가며, 독일에서의 생활이 더 알차게 될 수 있을듯해 행복합니다! 이번에도 정말 잘 짜여진 알찬 프로그램이었지만, 돌아오는 다음 학회까지 더욱 연구에 정진하여 좋은 발표로 학회에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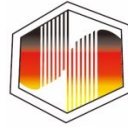
10 지역 김도영

즐거운 행사였다. 출발 전엔 다수의 사람 만남에서 오는 부담으로 내적 갈등 및 몸부림쳤으나 지인의 사진 속엔 이런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잘도 웃고 있었다. 다양한 분야 종사자들의 업계를 이야기를 술주정처럼 들을 수 있었고, 그 연구의 실체를 발표에서 확인하였고, 한국에서 이곳까지 이른 여정을 나누다 앞으로의 한치 앞도 안보이는 미래를 알콜의 힘을 빌려 낙관하기도 하였다.

가끔 한국의 오래된 친구들이 당연하다는 듯 너 언제 돌아와? 하고 물을 때마다 왜 돌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기저일까 마음속의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는(탈 국가 세계 시민이 되고 싶었다) 가족과 오래된 친구들로부터 비롯된 대체 불가능한 것이 있었다. 그 힘이 때로는 전부를 지탱할 수 있음을 깨닫던 중이었다.

당장 오는 새해, 또 삼 년 후 내가 어디에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유독 요즘 그 힘의 정체에 대해 생각해보던 내게, 이곳에서의 인연 역시 어쩌면 앞으로의 내가 한국, 혹은 비 한국을 살아가며 생각날 또다른 힘의 가능성일 수도 있겠다는 근거 없는 낙관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운영진께 감사드립니다. 소소한 참여자 1인으로서 앞으로가 더 기대될 것 같다고, 감히 쓴다.



2018년 재독과협 주요 행사 일정

지역 및 전문분과 모임 및 워크숍

일시: 수시

장소: 12개 지역회 및 8개 전문분과회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원

회장단 워크숍

일시: 수시

장소: Kiel 등

참가대상: 재독과협 회장단

2018년 1차 평의원회의

일시: 2018년 3월 2-4일 (금-일)

장소: Berlin

참가대상: 재독과협 평의원

자문위원회

일시: 2018년 4월 13-15일 (금-일)

장소: Augsburg

참가대상: 재독과협 자문위원 및 회장

2018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5월 4-6일 (금-일)

장소: Darmstadt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EKC 2018 (Europe-Korea Conference on Science and Technology)

일시: 2018년 8월 21-24일 (화-금)

장소: Glasgow, UK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유럽의 과협회원, 한국 및 유럽의 과학기술자

2018년 2차 평의원회의

일시: 2018년 10월 5일 (금)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평의원

2018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8년 10월 5-7일 (금-일)

장소: Essen

참가대상: 재독과협 전회원

한독공동학술대회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 주관)

일시: 2018년 10월 17-19일 (수-금)

장소: Aachen

참가대상: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회원, 한국 및 독일의 과학기술자, 재독과협 회원

회원가입 안내)

온라인을 통해 (<http://reg.vekni.org>) 신입회원 등록과 함께 기존 회원님의 정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모든 회원님께서 아래 링크에 등록하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별, 분과별 네트워크 활성화에도 중요합니다.

재독한국과학기술자협회

VeKNI e.V.

Holtener Str. 69.
24105 Kiel, Deutschland

Homepage : www.vekni.org

E-Mail : info@vekni.org

회원들의 제보 및 의견을 받습니다.

minjae.kim@vekni.org 편집간사 김민재